

3회째... 아직 같길 먼 '문화가 있는 날'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시행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세 달째 행사를 치렀지만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특색 없는 행사에 무관심을, 일부 국공립 시설들은 급하게 추진된 정책에 대해 불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인 지난 26일 광주지역 국·공립 문화시설과 민간 문화시설들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시내 주요 영화관이 관람객들로 붐빈 것과 달리 특색 없는 행사로 시민들을 기다린 미술관과 박물관 등 국공립 문화시설들은 한산한 모습을 보여 '문화가 있는 날'이 '영화 보는 날'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메가박스 광주점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시민들은 3000~4000원 할인된 금액에 영화를 관람하는 '뽕박의 행운'에 행복해 하는 모습이었다.

유지혜(여·31)씨는 "오후 6~8시에 상영하는 영화를 거의 절반밖에 볼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남편과 함께 극장을 찾았다"며 "앞으로도 매달 행운을 놓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오후 6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뽕박의 화가 김창열의 작품세계'를 주제로 열린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행사에는 시민 20여 명이 참여했다. 오후 7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린 '토크 뮤지엄-통행철기의 탄생, 2000년 전 목공기술과 옷철학'에는 30여 명의 시민들이 찾는데 그쳤다. 국립광주박물관 한 관계자는 "지난달 행사 때보다 참여한 시민들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날 무등도서관에서 열린 '독서토



'문화가 있는 날'인 지난 26일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열린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예술 프로그램 '미술과 함께하는 소리 질러 오페라'에 참석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담미술관 제공>

시립미술관·박물관 특색 없는 행사 시민 외면

주요 영화관만 북적... '영화 보는 날' 전략 우려

문만' 행사에는 겨우 7명이 찾았고, 산수도서관은 기존에 계획했던 '동화구연 자격증반'을 시간 대만 옮겨 야간에 진행하는 등 생색내는 수준에 그쳤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도 이날 2시간 연장 운영했지만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시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 국공립 시설을 찾는 이유는 대부분 기존 프로그

램을 낚아서 시간만 바꿔 운영하면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담양 대담미술관은 음악, 무용, 문학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무용'을 테마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꾸민 대담미술관에서 지난 26일 열린 미술과 음악을 접목해 '미술과 함께

하는 소리 질러 오페라' 행사에는 4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았다. 대담미술관은 4월에는 '시'를 주제로 문화와 미술이 어우러지는 '문화가 있는 날'을 꾸밀 예정이다. 그밖에 기본종은극장 상무점과 충장점은 공연을 40%가량 할인하고, 금호아트홀도 4월부터 공연 할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광주시립도서관 한 관계자는 "1년 프로그램이 이미 계획돼 있고, 예산도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시간만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정인기자 kki@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신문협회 부회장 선임

광주일보 김여송 사장이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31일 광주일보 김여송 발행인을 비롯해 조선일보 변용식 발행인, 한국경제 김기웅 발행인, 부산일보 이명관 발행인 등 4명을 협회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회장의 임기는 2016년 3월 정기총회까지다.

김여송 사장은 한국의국어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광주일보에서 정치부장·편집부국장 등을 지냈으며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에 걸쳐 14년 동안 전국 일간지 가운데 최장기 청와대 출입기자로 근무했다. 지



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호남지역 언론인으로 유일하게 방북 취재했으며 상장회사인 (주)광림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호남지역 언론인으로는 김남중, 김종태 전 광주일보 회장에 이어 3번째로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왕서방' 몰려온다

무안공항, 中 텐진·정저우·파렌 전세기 취항

특산품 구매 일정 포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도는 지난 31일 "4월부터 무안공항으로 텐진, 정저우, 파렌 등 3개 지역을 오가는 중국 정기선 인바운드 전세기 취항을 시작으로 중국 관광객이 대폭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4월5일부터 주2회(월·토) 운항하는 텐진 노선은 지난해와 같이 인천공항과 무안공항을 교차해 입·출국한다. 올해 처음 취항하는 정저우 노선은 5일부터 6일에 한 번씩, 파렌 노선은 30일부터 주 2회 운항하며 모두 무안공항으로 입·출국한다.

특히 이번 전세기 상품은 지역 내 특산품 구매 등 소규모관광 일정에 포함돼 그동안 단숨에 거쳐 가는 경유지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관광 목적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중국 선양, 난창, 광저우, 우한 등 3~4개 지역에서 전세

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마케팅 역할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인천과 김해공항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제주행 중국 관광객의 72시간 무비자 입국제도가 올 4월부터는 무안공항 등에도 확대됨에 따라 제주도와 인접한 이점을 살려 그동안 비자문제로 유체에 어려움을 겪었던 골프관광 등 고품격 상품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중국 텐진·선양 2개 노선에서 모두 3만9000명이 무안공항을 이용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年 300억...SK 최태원 '슈퍼 연봉왕'

재벌닷컴 집계...100억 이상 경영인 10명 안팎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등기임원으로 있던 계열사로부터 300억원대의 보수를 받아 '슈퍼 연봉왕'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보수를 회사에서 지급받은 '슈퍼 연봉' 경영인인 1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1일 재벌닷컴이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등기이사(퇴직자·사외이사·감사 포함) 개

인별 보수를 집계 집계한 결과 10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고액 임원은 1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업인 중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SK와 SK이노베이션, SK C&C, SK하이닉스 등 4개 그룹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300억원 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웃도어 '네파' 브랜드로 유명한 평안엘앤씨의 김형성 전 부회장이 지

난해에 퇴직금을 포함해 201억9000만원을 받아 연간 보수 순위 2위에 올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계열사로부터 받은 보수는 140억~150억원대로 조사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올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한화와 한화케미칼에서 100억원대 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동수 GS칼텍스 이사회회장이 지난해에 받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합친 보수는 모두 101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수수료 3천원 저렴 '알뜰 여권' 나왔다

외교부는 지난 31일 "사증(비자)란을 기존의 반인 24면으로 줄이고 발급수수료를 낮춘 '알뜰 여권'을 1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알뜰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이 5년인 것은 4만2000원, 10년인 것은 5만원으로, 기존 48면 여권보다 각각 3000원이 저렴하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은 현재 116개 국가 또는 지역을 입국사증 없이 방문할 수 있어 사증란의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알뜰 여권의 신청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순천 코스트코 건축심의 통과

조건부 가결...중소상인 반대 심해 최종 허가 난항 예상

순천 신대지구 입점을 추진중인 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순천점 건축심의가 3번째 도전 끝에 조건부 가결됐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1일 "최근 비공개로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신대지구 판매시설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열어 코스트코 건축계획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코스트코 순천점은 해룡면 신대리 2만637㎡의 터에 건축 면

적 1만3933㎡, 전체면적 3만6944㎡에 5층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청은 건축주가 각 위원이 제기한 조건의 이행계획을 확인받아 실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 관련 부서의 협의와 법령 검토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반발 등 정상 영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주)탑인프라 (주)티아이지 채용공고

21세기 환경친화적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의 전문기업으로서 환경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주)탑인프라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합니다.

1. 모집부문(신입 및 경력직)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비고
총무, 법무, 세무회계	0명	건설업 총무·법무·세무·회계 결산가능자	
건축, 전기공사, 시설물유지(공무, 공사, 영업)	0명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자격증소지(유무)	
태양광 (관리, 영업, 안전관리)	0명	에너지전문기업 (ESCO)경력자(유무), 안전출신(유무)	
총괄관리	0명	제재소 운영 유경험자 및 우드펠릿 관심 있는자	
통역	0명	러시아어 통역가능자 (해외출장결석사유없는자)	

* 모집전형, 1차 서류, 2차 면접

2. 제출서류

- 이력서(당사 소정 양식), 자기(경력)소개서, 졸업(예정)증명서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www.topinfra.co.kr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 제출방법 : 우편(택배):이메일 접수 · 주 소 : 광주시 북구 추암로 69 관리팀
- 이메일 : tid4088@hanmail.net
- 접수기간 : 2014년 04월01일(화)~2014년 04월 07일(화) 18:00까지(마감)

4.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팀(☎062.710.040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탑인프라 (주)티아이지